

# 군산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준비 '한창'

### 내달 16일부터 31일간 개장 편익시설 확충·안전관리 정비



군산지역을 넘어 서해안을 대표하는 고군산군도 선유도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준비에 한창이다.

군산지역을 넘어 서해안을 대표하는 고군산군도 선유도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준비에 한창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신선이 노니는 섬' 선유도해수욕장이 진입로, 주차장 등 환경 정비와 관광 편의시설을 갖춘 이후인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1일간 개장한다고 밝혔다.

천혜의 해양 절경을 자랑하는 선유도는 고군산군도의 중심 섬으로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피서지이며 유리알처럼 고운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불리는 곳이다.

또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이 두루 어우러진 곳으로 선유나초, 평사나안, 삼도카범 등 선유8경이 유명하며 바다낚시와 갯벌체험, 썰라인 등 다양한 해상 체험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시에서는 관광객

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욕장 일원의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개장 전까지 주요 시설물 점검, 사전 현지점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를 완벽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수욕장 일원에 다양한 조형물과 쉼터를 조성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민족도를 높이기 위해 섬 특성을 살린 감각적인 관광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수상오토바이, 구명보트, 구명조끼 및

구명환, 이동식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를 곳곳에 비치하고 무료 대여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무더위를 피해 선유도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지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개장 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개장 후에도 선유도만의 관광콘텐츠로 4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해양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익산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 내달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 지원

공농공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해당한다.

익산시는 산업단지 관리기관별로 두 차례 시행(18년 3월 22일, 5월 21일)한 교통여건 조사 결과와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심지간 거리, 버스·지하철 접근성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해 선정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6월 5일)를 통해 산업단지 명단(842개)을 공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및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익산=우병희기자

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익산시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익산=우병희기자

# 익산시, 조식료 하계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익산시가 하계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하계 주요 작물은 시토용 옥수수 총체비(시토용 비), 수타그라스 구리 등이 있고 사업대상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로서 조식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이다.

시는 하계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조

식료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조식료생산용 시토용 시토비제조 지원 사업, 조식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단가는 kg당 16원으로 모와 시토비 지원한다. 단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농작물 재배사업, 생물다양성협약에 참여하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식료생산용 시토용 시토비제조 지원 사업

은 시토작물을 이용한 시토비 제조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급단가는 톤당 204,000원이며 국·도·시비로 지원한다.

종자구입 지원 사업은 시토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종자구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한다.

한편 시는 2017년에 151ha의 면적에서 조식료를 생산, 2018년에는 면적을 더 확대하여 조식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 관심사

## 최종오·김충영·조규대·김용균 거론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7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최종오 의원



김충영 의원



조규대 의원



김용균 의원

정당별 의석수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7명을 비롯,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4명으로 민주당 소속이 전체의 68%를 차지할 정도.

이같은 상황에서 익산시 전반기 2년을 이끌 의장으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은 5선의 김용균(88·무소속) 조규대(63·민주당), 4선의 최종오(62·민주당), 3선의 김충영(55·민주당) 등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의장에 뜻을 두고 당사자들과 접촉

을 벌이고 있다는 인물은 최종오 의원으로 전해졌다.

지난 6대 시의회 후반기때 부의장을 역임한 뒤 제7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동료의원들에게 양보(?)했다는 설명이다.

조규대 의원은 제7대 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지만 시정을 독단적으로 이끄는 무소속 박경철 시장을 견제하느라 각종 행사에서 축사도 못하는 등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기

회에 의장을 맡아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의장 출마를 공식화 하지 않고 있지만 김용균 의원은 최다선의 관록을 내세우며 내심 의장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충영 의원은 경우 특유의 부지런함을 앞세우며 조심스레 의장 자리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그동안 익산시의회 의장단의 경우 원내 다수당 갑·을지역위원회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선출돼 왔던데 관례다.

/익산=우병희기자

# 익산농업기술센터 내달부터 귀농·귀촌교육 심화과정 운영

익산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가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돕기 위해 신규농업인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2018년도 귀농·귀촌교육 심화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심화교육과정은 좀 더 농업전문적인 범위에서 원예, 축산, 농산물 가공 관련 특강을 계획했고 농업 6차 산업으로써 치유농업의 이해와 실질적인 농업경영 회계 관리 및 농기계와 농산물 가공, 선도농가 현장실습 등 다양한 고 교육생 60명을 신청접수 받고 7월 6일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업의 미래, 4차 산업'이라는 주제로 첫 특강을 실시하여 10월

중순까지 총 15강의 일차고 내실 있는 정규교육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심화교육과정은 좀 더 농업전문적인 범위에서 원예, 축산, 농산물 가공 관련 특강을 계획했고 농업 6차 산업으로써 치유농업의 이해와 실질적인 농업경영 회계 관리 및 농기계와 농산물 가공, 선도농가 현장실습 등 다양한 고 교육생 60명을 신청접수 받고 7월 6일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업의 미래, 4차 산업'이라는 주제로 첫 특강을 실시하여 10월

# 익산시립도서관 1주1책 '서부전선 이상없다' 선정



이번 주 1주1책 도서로 이상주 익산경찰서장의 추천도서인 '서부전선 이상없다'가 선정됐다. 익산시립도서관이 밝혔다.

이상없다는 작가의 제2대전 체험을 바탕으로 평범한 병사가 견뎌 내는 전쟁을 감정의 개입 없이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책이다.

제2대전이 한창이던 독일의 한 마을 고등학교생(파울 보이어)이 선생님의 애국심을 호소하는 참전독려 연설을 듣고 친구들과 자원원예 후 전쟁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나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추천자는 "최근 남북 북미 화해무드를 보면서 평화를 소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며 젊은 날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감동을 주었던 반전문학의 최고작 서부전선 이상없다를 읽어보시길 권한다"며 이 책을 추천했다.

/익산=우병희기자

# 군산시농기센터, 관내 농가 일손 돕기 구슬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농촌지원과 직원들은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일손 돕기는 지난 15일 농촌진흥청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자기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서수면 서수리 1891번지 일원 4,600㎡ 규모의 마늘밭에서 마늘 캐기 등 마늘 수확이 나갔다.

일손 돕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처

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수확 작업에 정성을 다했으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문영열 농촌지원과장은 "마늘 농사의 성공은 작기 수확과 관리에 달려있어 수확 후 2~3일 가량 밭에서 비닐을 제거하고 휴 위에서 건조하는 것이 병원균 발생을 억제해 품질을 높인다"며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 매달아 건조시키는 등 수확한 후 건조에 힘써, 땅 흘러 농사지은 마늘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